

# 눈비에 낙상... 보도 위 암살자 '블랙 아이스'

### 점자블록 미끄럽고 도로경계석 빙판길 둔갑 시민 안전 위협 경계석은 대부분 화강석 재질... 결빙엔 육안으로 확인 불가 관련 조례 등 없어 광주 5개 자치구 뒷집만... 서울시와 대조

지난 17일 광주시 남구에 사는 박병석(32)씨는 택시에서 내리던 중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빗물에 젖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밟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를 '뺏'한 것이다.

박씨는 "비에 젖은 점자블록이 그렇게 미끄러운 줄 몰랐다.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시각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이기도 한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블록으로 설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북구에 사는 김민호(9)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께 등굣길에 도로경계석에 미끌어 지면서 얼굴을 크게 다쳤다. 새벽에 도로경계석 위로 내린 이슬이 낮은 기온 탓에 얼어 붙으면서 빙판길이 된 것이다.

김 군의 엄마(40)는 "아이가 인도를 걸던 중 반질반질한 경계석을 밟으면서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다"면서 "경계석을 만져보니 얇은 얼음막이 형성돼 있었다"고 말

했다.

광주지역 인도 곳곳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도로경계석 등 일부 시설물이 눈-비만 오면 미끄럼 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물은 겨울철만 되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이른바 '인도 위 블랙 아이스'로 돌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시설물 교체·보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은 대부분 화강석 재질이다. 화강석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급스런 질감 등 강점이 많지만, 미끄럼 사고엔 취약한 게 약점이다.

특히 눈-비가 내리는 날이면 도로 위 '블랙 아이스'처럼 경계석 위로 얼음 등이 형성되고,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겨울철만 되면 경계석을 밟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광주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도로경계석을 관리하고 있

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별다른 대책마련 없이 뒷집만 지고 있다.

관련 조례 등이 없어 미끄럼방지 기능이 없는 도로경계석을 설치하고 있다는 게 자치구들의 해명이다.

반면 서울시 등은 도로경계석의 미끄러운 면을 사포면처럼 거칠게 표면처리하는 등 미끄럼방지 시공을 해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로경계석 못지 않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도 미끄럼 사고를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다.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점자블록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점자블록은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염화비닐(PVC)과 탄성고무 등으로 구성된 재질을 사용해 안전하다'는 문구만 있을 뿐 미끄러운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특히 이들 시설물은 실외는 물론 지하철 시설 등 실내 곳곳에도 설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한 관계자는 "비나

눈이 내리날 이면 점자블록은 물론 대리석 등도 미끄럽다"며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려고 하지만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은 습기가 빠지지 않아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9개월간(2016년부터 지난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낙상사고는 1만2802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도로 및 인도에서만 868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유발 품목은 바닥재 6079건, 계단 및 층계 1282건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실내와 설치된 모든 점자블록과 도로경계석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조제 제정 등을 통해 앞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물은 반드시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로경계석 등에 대한 미끄럼 방지 시공 계획은 없다."

광주의 다른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경계석 등에 미끌어져 다쳤을 경우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배상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식당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무죄

###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뢰 못 해"

희식 자리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6개월 후 여성 주민이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억을 잘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인 주민 등 2명만 구체적인 시간, 대화 내용을 진술했고,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인 데다 피해자인 주민은 상대 후보 선거사무원이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피해자는 1차 기자회견에서 허벅지를, 2차 기자회견에

서 왼쪽 허벅지를 언급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당했다고 진술했다"며 "순간 착오가 있었을 수 있지만,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 부위 진술이 달라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 희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유 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유 군수는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여러 사람이 참여한 주민 간담회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미용실서 이발 후 흥기 강도 돌변 40대 구속

군산경찰은 "미용실에서 미용사를 흥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50분께 군산시 한 미용실에 들어가 미용사 B(여·27)씨를 흥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이

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흥기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이를 우연히 목격한 상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황급히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이 미용실의 회원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거지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 발대식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강의실에서 열린 '광주형 생활쓰레기 제로 네트워크 시민실천단 발대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떡살잡이에 다친 경찰, 13년뒤 디스크도 공무상 재해"

### 서울고법, 항소심 원고 승소 판결

피의자와의 몸싸움으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 경찰관이 13년 후에 주변 부위에도 같은 병을 얻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법 강승준 부장판사)는 퇴직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포 출소소에서 근무하던 2003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되던 피의자들이 떡살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허리 부위에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얻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해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퇴직 후인 2016년 과거 다친 곳 바로 아래에 또 디스크가 발생했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이 부위는 13년 전 사고 이후 아프게 된 곳으로, '변성 디스크'와 '요추 불안정증'이라는 병명이 붙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13년 전의 사고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13년 전 사고로 인해 변성 디스크 등이 발생했고, 이것이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지 3개월 사이에 A씨가 디스크 등 소견을 받은 과정에서 다른 사고나 원인이 개입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서 주택·상점에 차량 잇따라 돌진

음주운전이나 차 사고로 상점과 주택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0시 15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A(31)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돌로

된 담이 주택 마당 쪽으로 무너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99%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6일 밤 10시 10분께에는 남구 주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60대 운전자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애견숍으로 돌진했

다. 차로변경 과정에서 20대 운전자 C씨의 승용차와 옆면을 부딪치고 차량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영입이 끝난 상점에서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B씨와 C씨 모두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C씨가 벌금 15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것을 확인하고 C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래퍼 슬리피 손해배상 피소... 前소속사 "전속계약 위반"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35)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18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료 등을 (소속사에) 숨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000여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앞으로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슬리피는 2008년부터 TS에 소속돼 활동했으나 지난 5월 법원에 전속계약효력 정지처분신청을 내면서 TS와 갈등이 시작됐고, 현재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 슬리피는 과거 회사가 제공한 소속에서 단전·단수를 겪었고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반면 TS 측은 지난 9일 슬리피 소속에 단전·단수는 없었다는 한국전력 공문과 관리사무소 사실확인서를 공개.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꼭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